4월 전기에 가스요금까지 동시 인상?…이번주 요금안 발표

2분기 전기요금 및 4~5월 가스료 재산정 오는 31일 발표 유력···산업·기재 조율 중

다음달 1일부로 전기와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될 지 주목된다. 인상 여부와 구체적인 인상폭 등을 두고 물가와 에너지 당국의치열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최종안은이번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2분기(4~6월) 전기요금과 4~5월 가 스요금이 새롭게 적용된다. 확정된 요금은 오는 31일께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기요금은 매분기 직전 월, 가스요금은 홀수달에 재산정된다. 이에 따라 이달 내 전 기·가스요금 인상 여부가 동시에 확정돼 다음달부터 반영된다.

앞서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6일 산업부에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2023년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산정해 제출했다. 한국가스공사도 지 난 17일 산업부에 '도시가스 원료비 조정안' 은 내다

이후 한전과 가스공사는 산업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한 내용을 회신 받고, 이를 토대로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에너지 당국인 산업부와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사이 조율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어, 아직 최종 협의안을 회신받지 못한 상태다.

한전은 협의안을 기반으로 지난 21일 최종 인상안을 발표하려 했지만 이를 미뤘다. 가 스공사도 관계부처 조율을 기다리는 중이다. 구체적 일정과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언 제까지 논의가 계속될 지 답을 줄 수는 없지 만, 4월1일부터 적용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31일 안에는 최종안이 발표될 수밖에 없다" 고 말해다

발표는 이달 마지막 평일인 오는 31일이 유력하다. 앞서 가스요금 인상 후폭풍으로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논란이 일었던 데다, 이번에 요금을 동시에 인상하면 서민 부담과 물가 인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 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양 부처에서 마감 기 한인 31일까지 신중을 기할 것이기 때문이 다. 앞서 1분기 전기요금 인상안도 지난 12월 마지막 평일이었던 30일까지 미뤄졌다 발표 된 바 있다.

다음달 전기·가스요금은 앞서 산업부에서 제시한 인상 요인 등을 고려하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며 에너지 가격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키우고 있고, 지난해 에너지 공기업 실적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에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와 미수금 수준 ▲물가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살핀 후 결정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전은 지난해에만 32조6034억원 영업 손실을 냈는데, 이는 전년(5조846억원)보다 456.7% 악화된 수준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크게 성장했지만 부채비율은 연결기준 500%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12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게다가 민수용 미수금이 지난해 8조6000억원까지 늘어났다.

게다가 세 번째 지표이자 인상 우려요인으로 거론되는 물가는 상승률이 둔화될 전망이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달에 특별한 기상 악화 요인이나 돌발 요인이 없으면 2월 4.8%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와 한전은 올해 기준연료비를 포함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kWh당 51.6원으로 산정했다. 이중 지난 1분기 13.1원이 인상 된 상황이다. 3분기 에어컨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을 앞두고 큰폭 급격히 인상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적은 2분기 봄철 에 소폭이나마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가스요금의 경우 지난 1월 동결한 후폭풍을 맞고 있다. 그 여파로 지난해 말 8조원 대였던 미수금이 1분기에 12조원까지 불어날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가스공사는 미

수금 악화로 인해 올해 주주 배당을 하지 않 겠다고 발표하면서,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샀 다

가스공사 소액주주 연대는 그동안 요금을 동결하다 미수금이 불어나고 실적악화를 만 들고, 정작 주주 배당을 하지 않는 것에 문제 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소액 주주 연대에 서 요금 인상으로 적극적으로 미수금 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데다, 실제로도 미수금 규모가 자본잠식을 우려할 만큼 악화되는 만 큼 연이어 요금 동결을 결정하기도 쉽지 않 은 상황이다.

다만 두 요금을 동시에 인상할 경우 여전히 국민 저항이 클 수 있고, 에너지 취약층의부담도 우려되는 만큼 최종안이 어떻게 결정될 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도 에너지 요금이 한 번에 인상될 때 물가에 미칠 부작용 등을 고려하며 산업부와 적정인상 수준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

한편 한전의 주주총회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가스공사는 29일 오후 2시께 열릴 예 정이다.

최이슬기자



농협 하나로마트 함안 봄 수박 첫 출하

26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 들이 첫 출하된 함안 수박을 소개하고 있다.

'매운 음식'에 어울리는 막걸리는…'막쿠르트' 등 4종 추천

지난해 hy-술담화 협업 '전통주'

때운 음식과 궁합이 좋은 막걸리는 어떤 게 있을까.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사이에서는 매운 음식을 먹는 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으며 맵 부심(매운 음식을 잘 먹는 것에 대한 자부심) 등 유행어가 생겨나고 있다.

막걸리는 매운 맛 음식에 어울리는 주류로 꾸히다.

막쿠르트는 지난 11월 hy와 술담화가 출시 한 전통주다. 제품은 출시 직후 온라인에서만 2만병 이상 팔렸다.

막쿠르트는 매운 떡볶이에 자주 마시는 유 제품 음료의 대체품으로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유의 새콤달콤함이 매운 음식으 로 얼얼해진 입안을 가라앉히면서도 매운 떡 볶이와 매우 잘 어울린다.

포천일동막걸리의 '담은 블랙'은 흑미로 만들어져 어두운 자줏빛 외관과 묵직한 보디감이 초콜릿 우유를 연상시키는 제품이다. 입안에 스며드는 달콤함이 매서운 매운맛도 차분하게 가라앉힌다. 담은 블랙은 양념치킨과 궁합이 좋다.

하강주조의 '나루 생 막걸리 6%'의 쌀 함유



량은 일반 막걸리의 2배에 가깝다. 높은 쌀 함 유량은 첨가물 없이도 은은한 단맛을 선사한다. 배, 참외, 멜론의 시원한 맛이 매운맛을 식힌다. 나루 생 막걸리에는 매운 닭발을 추천한다.

. 홀리워터의 '마크홀리 오리지널 6.0'은 어메 이징 브루어리의 자회사 마크홀리의 제품이다.마크홀리 오리지널 6.0은 우유의 질감에 생크림을 연상케 하는 달콤함과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 매운 주꾸미 볶음과의 페어림이 좋다.

서선옥기자

'건강한' 식이섬유에 빠진 '식품업계'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오자 식품업계가 더 가벼운 봄맞이를 위해 나섰다. 봄은 겨울 동안 쌓인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기 좋은 시기이다. 이때 필수적인 영양소가 바로 '식이섬유'다.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도와 장 속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변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대장의 유익균들에게 먹이를 제공함 으로써 대장의 기능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

그러나 불규칙한 식사 습관과 바쁜 일상으로 식이섬유의 섭취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식품업계에서는 간편하고 맛있게 식이섬유를 보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사과의 20배 식이섬유 함유한 브랜!…농 심켈로그 '든든한 브랜 그래놀라'

농심켈로그는 사과의 20배에 달하는 식이섬 유가 들어 있는 '브랜(밀기울)'을 활용한 그래 놀라 제품을 선보였다.

신제품 '든든한 브랜 그래놀라'는 국내 최초 브랜으로 만든 푸레이크와 오트 그래놀라, 블 랙 통곡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제품이다. 특 히 브랜은 밀을 빻아 체로 쳐서 남은 속겨 또 는 껍질 부분으로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B 군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6가지 슈퍼시드로 식이섬유 강화한 도우, 도미노피자 '아보카도 새우 피자'

도미노피자는 식이섬유 함량을 강화한 '슈 퍼시드 화이버 함유 도우'에 아보카도, 새우 등 풍성한 토핑을 활용한 '아보카도 새우 피자'를 출시했다.

'슈퍼시드 화이버 함유 도우'는 기존 '슈퍼시 드 함유 도우'를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100% 국내산 흑미를 비롯해 햄프씨드, 병아리콩, 귀 리, 퀴노아, 아마씨, 렌틸콩 등 총 6가지 슈퍼시 드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돼 있다.

◆로만밀과 슈퍼푸드로 식이섬유·단백질 함 량 더한 '로만밀 통밀빵'

SPC삼립은 로만밀과 슈퍼푸드로 식이섬유 와 단백질을 높인 '로만밀 통밀빵'을 출시했다. '로만밀 통밀빵'은 세계적인 통곡물 전문 브랜 드인 미국 '로만밀(Roman Meal)'사의 통밀을 사용했다.

과거 로마 병사들이 체력 강화를 위해 매일 통밀과 호밀을 섭취했던 것에 착안해 통밀과 호두, 해바라기씨, 아마씨 등 슈퍼푸드를 넣어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높였다.

◆키위 과즙 한 컵에 비타민C와 식이섬유까지, 서울우유협동조합 '올데이프룻 키위'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새콤달콤한 키위로 만든 과즙 음료에 비타민C 100mg과 식이섬유 2000mg의 영양을 담은 '올데이프룻 키위'를 출시했다. '올데이프룻'은 과일 농축액을 활용한컵 음료로 지난해 오렌지, 자두 맛을 출시한 데이어 키위까지 제품 라인업 확대했다.

). 이슬비기자

30평 올수리 6000만원 '훌쩍'…자잿값 급등에 업체·손님 '비명'

국제 유가 급등→목재·창호 원자잿값·운송비 치솟아

"인테리어 견적이 너무 비싸서 결국 도배 와 장판만 하고 들어가기로 했어요."

최근 서울 동작구의 전용면적 85㎡ 아파트를 사들인 최모(46)씨는 '올수리' 후 입주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여러 인테리어 업체에서 받은 견적이 예상 비용을 훨씬 초과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업체마다 조금 다르지만, 올수리를 하는데 3.3m²당 200~300만원 수준이었다"며 "인테리어 비용이 부담돼도배나 장판 등 꼭 필요한 것들만 시공해 비용을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주택 인테리어 대한 관심은 커 졌지만, 원자잿값과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 해 인테리어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인테리어 견적 비용 부담을 호소하거나,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인테리어 시공을 하는 업체에 대한 문의하는 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 올 들어 원자잿값이 또 오르면서 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원유와 시멘트, 목재, 철근 등 기초 원자잿값이 급등하면서 인테리어에 필요한 자잿값과 인건비까지 덩달아 치솟고 있다. 원유값이 오르면서 인테리어에 필요한 페 인트와 페인트 도장 제품, 필름 등의 가격이 도미노처럼 상승하고 있다. 또 목재 값이 오 르면서 인테리어 시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각종 토목공사 비용이 상승했다. 여기에 운 송비와 인건비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인테리 어 비용이 상승하는 구조다.

인테리어의 주요 원자재인 목재 가격도 치솟고 있다. 산림청과 대한목재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목재제품의 수입 단가는 전년 동월 누계 대비 합판이 5.3%, MDF가 6.4%, 칩(펠릿)이 35.1%, 단판이 0.1% 상승했다. 또 지난해 3월 기준 러시아산 제재목 가격은 1㎡당 최대 90만원까지 치솟았다. 전년도 같은 기간 1㎡당 54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년 새 가격이 60% 이상 급등했다. 특히 치솟은 가격이 떨어지기는커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글로벌 목재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리모델링에서 비중이 높은 창호값도 고 공행진이다. 건자재 업계에 따르면 창호값 은 최근 1년 새 30~50% 올랐다. 창호 주원 료이자 석유화학 제품인 PVC 가격이 유가 상승 여파로 60% 가까이 치솟았기 때문이 다. 지난해 초 배럴당 80달러 선이던 서부텍 사스유 가격이 배럴당 110달러에 육박했다. 이 기간 원유 정제 원료를 쓰는 페인트는 20~30%, 바닥재는 8~10% 올랐다.

20~30%, 마닥새는 8~10% 돌덨다.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받는 인테리어 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 주택 거래량은 급감했다. 국토교통부에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주택 거래량은 총 5만4000건으로, 전년 동기 9만5000건보다 4만1000건(42.1%) 감소해다

건보다 4만1000건(43.1%) 감소했다. 특히 원자잿값 인상으로 시공비 단가가 높아졌으나, 수요가 없다보니 수익성이 오 히려 악화됐다는 게 인테리어 업계의 전언 이다. 서울 마포구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 영 중인 김모(55)씨는 "목재부터 페인트까 지 안 오른 게 없을 정도로 모두 올랐다"며 " 봄 이사철에는 인테리어 관련 문의와 계약 이 많은 편인데, 올해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 태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는 "불과 2년 전 만에 해도 기본 만 하는 소위 세입자용 인테리어 비용이 평 당(3.3m²당) 100만원 안팎이었는데, 이제는 최소 200만원이 넘는다"며 "원자재값부터 인건비와 운송비 같은 고정비도 올랐는데, 오른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재환기자